

#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에 '앞장'

### 롯데백 전주점, '현영의 엔젤마켓' 바자회 열어 착한 쇼핑의 기회 제공... 판매 수익금 일부 기부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엔젤마켓' 현영이 자선 기부바자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오늘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함께 여러 신진디자이너들과 중소기업의 이색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기획하고 진행되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전북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현영의 엔젤마켓은 제품의 질과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입지가 불안정한 중소기업 브랜드와 유명 디자이너들에 밀려 설 자리가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품 위주로 선보여 이른바 '착한 마켓'으로 불린다. 현영의 엔젤마켓에서는 의류, 잡화, 아동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브랜드의 제품들로 구성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쇼핑의 장을 마련한다.

전효린 (주)오늘커뮤니케이션 이사는 "방송인 현영씨와 함께하는 현

영의 엔젤마켓은 고객들에게 착한 쇼핑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신진디자이너들과 중소기업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김대원팀장은 "고객들에게 색다른 쇼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고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에게 다양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기간 내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영씨는 행사기간중인 25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롯데백화점은 '현영의 엔젤마켓'을 통해 20대~60대까지 폭 넓은 고객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그 동안 백화점을 찾지 않던 고객들까지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

프린팅스커트를 선보이는 '바이.오프' 랩원피스를 메인으로 판매하는 '트브우' 화려한 컬러로 시선을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엔젤마켓' 현영이 자선 기부바자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사로잡는 '샤아, 유니케' 편안하고 세련된 룩으로 모던함을 강조하는 '베리모어' 화려한 컬러감과 패턴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스텔라' 편안함과 디테일이 강조된 '브랜디스, 비온트' 등이 대표적이다.

소품들도 다양하며, '메이드퀸, 연분홍, 땃츠화, 투시아'에서는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선보인다.

감각적인 고크래티의 디자인 벨트를 선보이는 '플레이어' 커스텀주얼리로 엔티크한 스타일을 제안하

는 '바이타미, 일루아, 나인큐브' 여름 잠마찰을 대비한 북유럽풍의 아동 우비와 장화를 선보이는 '엔즈부티크'에서는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에게는 핸드메이드 톨슬리퍼를 19,000원 제공한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원목도마도 만날 수 있으며, 수제원목도마를 준비한 '프레리'는 도마를 구매하고 고객에게 편백 미니도마를 1+1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화산농협에서 농업인 행복버스 첫 시동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전주완주 시군지부(지부장 홍종기), 화산농협(조합장 김중채)은 원광대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용선)과 21일 화산농협 농산물 직판장에서 관내 농업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장수사진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전북에서 첫 출발했다고 밝혔다.

원주 화산지역에서는 행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대전주한방병원 의료진 20여명이 지역 농업인 200여명으로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 침, 뜸 치료와 약제 처방 등의 의료 봉사를 하여 농사일로 지친 농업인 어르신들의 피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디스튜디오(대표 김천용)에서 찾아와 150여명의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장수 사진 촬영도 함께 이루어져 오신 어르신

들이 매우 기뻐했다. 화산농협 김중채 조합장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화산지역에서 이루어져 농업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린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농촌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행복버스'는 소외된 농촌지역에 의료,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올해 전북농협에서는 화산농협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소외된 농촌지역을 찾아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LX, 강원·전북지역 관광활성화 발 벗고 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동부지역과 전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LX와 전북지역에 이전한 5개 기관(농촌진흥청, 국민연금, 농업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0일 오후 서울논현동 소재 LX 글로벌센터에서 강원 동부 산불피해 지역과 전북지역의 대표적 숙박시설 13곳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6개 기관 종사자 약 1만7,000여 명과 이들 가족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휴가 사용 등에 적극적으

LX는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사이트(<https://jasc.furnbiz.co.kr>)를 6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지역 내 각종 체험시설과 놀이시설 입점권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지역을 방문한 이들이 다양한 관광과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최창학 사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의 다양성이 적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뿐 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금융 전문가 양성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0일~21일 이틀간 지역본부에서 창의적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나를 변화시키는 축적의 시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이끌어내고 국내의 경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본부는 통상적인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아이디어로 바꾸는 '생각정리'라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실습을 도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최근 국내의 주요 경제 지표와 경제 전망,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토의를 통해 금융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근 본부장은 "새로운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축적되어 전북도민과 고객이 행복한 농협은행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대한민국 아마추어 바둑에 날개를 달다

### 이스타항공, 국내 첫 실업바둑팀 창단... 다양한 마케팅 계획

한·중·일을 넘어 동남아 지역에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지식 스포츠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실업 바둑팀인 '이스타항공 바둑단'이 탄생했다.

이스타항공은 21일 '이스타항공 바둑단' 창단식을 갖고 국내 첫 실업 바둑팀 운영에 나선다.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한바둑협회 윤수로 회장, 한국기원 한상열 비상대책위원장,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 이창호 국수,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은 국내 최초의 아마추어 실업 바둑팀으로 각종 대회

입하고 류승희, 김규리, 채현지, 정지우 등 4명의 아마추어 여자선수도 팀을 꾸렸다.

이스타항공은 앞으로 선수단의 실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대회출전을 지원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바둑단을 운영하며 바둑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 고객 접점의 마케팅 활동, 해외 친선대회 참가 등 바둑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수단과 함께 국내 바둑 인재의 육성과 바둑의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바둑시장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기반이 없었다.

하지만 바둑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올해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에 포함되면

서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한 실업팀 창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은 창단식을 시작으로 대한바둑협회의 첫 민간실업팀으로 등록되고 국내 1호 실업바둑팀으로 활동하게 된다.

올 10월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을 대표해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돌입한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은 이날 창단식에서 전라북도체육회로부터 3,000만원의 창단지원금을 지원 받았다.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는 "바둑과 항공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치가 줄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안정감 있는 스포츠로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스타항공의 가치와 닮았다"며, "이스타항공이 추구하는 국가는 대부분 바둑 문화권인 만큼 바둑단을 활용해 노선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바둑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 선정·현판 수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세계시장 선도에 도전할 수출중소기업 존스미디어(주), (주)삼원중공업, 성일하이텍(주), (주)세창스틸, (주)계비전, (주)지엠에프 6개사를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했다.

글로벌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 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자체, 민간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중앙-지방-민간'의 우수협력 모델이며, 매출액 100~1,000억,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에서는 글로벌강소기업으로

2011년부터 총 37개사가 지정되어 이중 19개사가 졸업했고, 금년에 지정된 6개사를 포함하여 유효기간 내 있는 18개사의 평균매출액은 326억이고, 평균수출액은 894만불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지원 받게 된다.

또한, 중기부는 해외마케팅(4년간 2억)사업과 R&D사업을 우대선정하고 지자체는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사업화,인력 등)을 통해 기업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8개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보증 등 1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